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674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3년 3월 29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3일

2. 제안이유

- 재난총괄 기능 강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 등 민선8기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「안전총괄실」을 「재난안전관리실」로 개편 및 ‘재난상황관리과’ (4급) 신설
 - ‘재난상황관리과’ (4급)를 신설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접수 체계 마련 및 ‘안전총괄과’ → ‘재난안전정책과’, ‘안전지원과’ → ‘재난안전예방과’ 로 재편
- 나.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핵심분야 기능 보강재편

- 한강르네상스 2.0 핵심과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「한강사업본부」를 「미래한강본부」로 명칭 변경하고 ‘수상사업부’ 기능 강화
- 그 밖에 「아동복지법」 개정(’ 20.10.)으로 아동학대조사 권한이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지자체(자치구)로 이관되어 ‘아동복지센터’ 의 소관사무 현행화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민선 8기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재난대응 총괄 기능 강화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핵심분야 기능 보강 및 재편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됨.

나. 조직개편안 주요 내용

- 서울특별시(이하 ‘서울시’)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시정 운영 방향을 ‘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’, ‘매력있는 글로벌 선도 도시’로 제시하고, 시정 핵심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함(2022년 8월).
- 이후 집중호우(2022.8.8.~8.9)와 이태원 참사(2022.10.29) 등 재난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시장의 공약사항인 ‘한강르네상스 2.0’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함.
- 이로 인해 서울시 조직체계는 6실 4본부 11국 15관·1단 161과·담당관에서 6실 4본부 11국 15관·1단 162과·담당관으로 개편됨(+1과 △1반).

< 서울시 조직체계 개편 내역 >

< 현 행 >



< 개편 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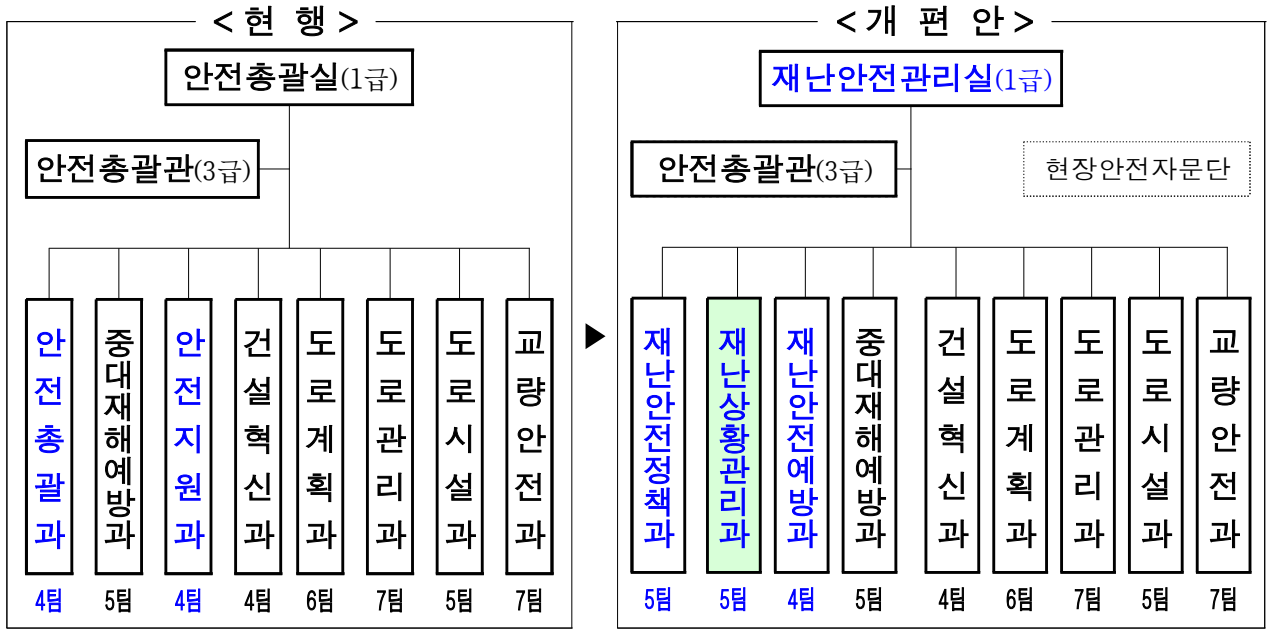


- 또한, 정원은 그대로 두고 중간직급인 5·6급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(피라미드형→항아리형)으로 직급체계를 구축해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함.

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(1) 재난대응 총괄기능 강화(안 제4조, 안 제15조)

- 서울시는 ▶ ‘안전총괄실’ (1급)의 기관명칭을 ‘재난안전관리실’ (1급)로 변경하고, ▶ ‘재난상황관리과’ (4급, 소방정)를 신설하며, ▶ ‘안전총괄과’와 ‘안전지원과’를 ‘재난안전정책과’와 ‘재난안전예방과’로 각각 개편하여 재난대응 총괄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
- 또한, 민간전문가로 현장안전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·재난대응 컨설팅을 실시해 재난 예방·대응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.
- 이번 개편을 통해 ‘안전총괄실’은 1실·1관·8과·42팀에서 ‘재난안전관리실’ 1실·1관·9과·48팀(+1과, +6팀)으로 확대됨.



- 신설되는 ‘재난상황관리과’는 ‘안전총괄과’에서 수행하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고(재난상황팀→상황총괄팀), 상시적인 재난상황 전파·접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상황관리팀 4개(5급 소방령)를 신설할 예정임.

< 재난상황관리과 소관 팀별 현황 >

| 구분 | 기능 | 팀장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상황총괄팀 |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총괄, 재난현장지휘 버스운영 등 | 행정5급 | 이관 (재난상황팀) |
| 상황관리 1팀~4팀 | 재난상황 접수,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상황 전파 등 | 소방령 (5급) | 신설 |

- ‘안전총괄과’는 ‘재난안전정책과’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산재된 재난수습 기능을 일원화하고 신속한 재난 구호·복구 기능을 강화하게 됨.

< 재난안전정책과 소관 팀별 현황 >

| 구분 | 기능 | 비고 |
|-------|--|----|
| 안전총괄팀 |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집·운영 지원, 더안전회의 등 현안회의 운영 등 | |
| 안전정책팀 |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정책 개발, 도시위험성 종합평가 등 | |
| 재난대응팀 |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·개선, 모의상황 조치훈련 등 실질적 훈련 시행 | |
| 재난수습팀 | 재난 시 구호·복구 지원 총괄, 재난관리지원 비축·운영 | 신설 |
| 안전감찰팀 | 市·區 재난관리체계 평가 등 재난예방·이행실태 상시 점검·감시 | 신설 |

- ‘안전지원과’ 는 ‘재난안전예방과’ 로 부서 명칭을 개편하여 재난 예방기능에 집중할 계획임.

< 재난안전예방과 소관 팀별 현황 >

| 구분 | 기능 | 비고 |
|-------|--|-----------------|
| 재난예방팀 | 폭염·한파 종합대책 시행, 사회재난 예방 및 관리 총괄 등 | 안전지원팀 (명칭변경) |
| 인파관리팀 | 축제·행사 현황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안 심의, 인파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| |
| 생활안전팀 | 재난예방 정책 및 대시민 교육, 안전보안관 운영 등 생활 안전 모니터링 | 사회안전팀 (명칭변경) |
| 지진관리팀 |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·시행, 지진안전센터 운영 및 지도·관리 등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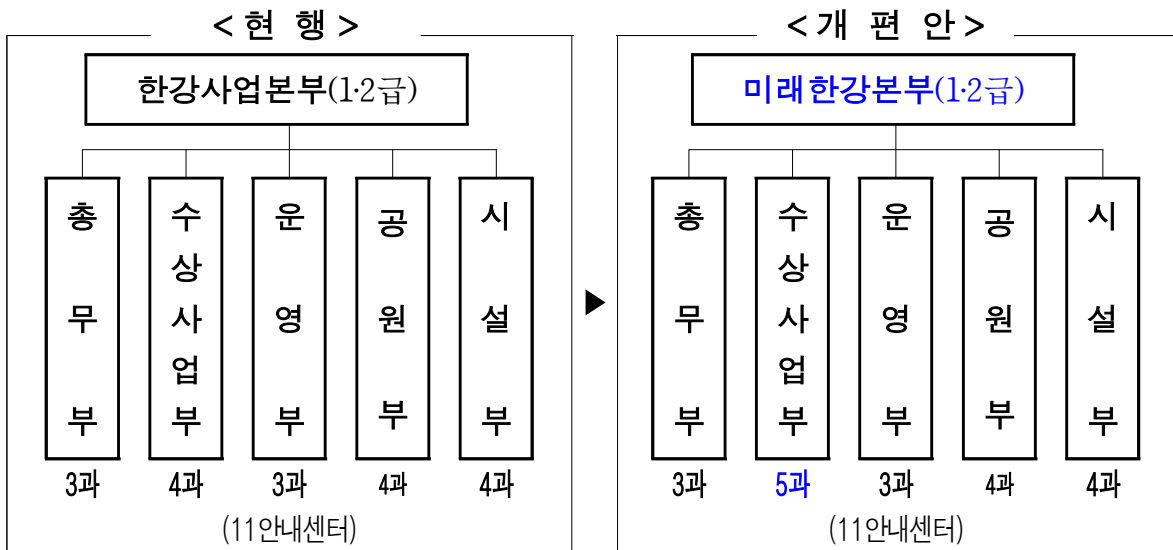
- 우리 사회는 과거 고도압축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과거형 위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재난과 감염병, 환경오염 등 미래형 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

- 이와 같은 현대 위험사회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, 재난 대응 총괄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직개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음.
- 하지만, ‘재난상황관리과’ 신설은 기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에 상시 인력(5급 관리자)을 배치하는 것이고, ‘재난안전정책과’에 신설된 재난수습팀·안전감찰팀은 타 부서의 사업을 이관한 것에 불과해 한층 더 고차원적인 재난 대응력 강화라는 조직 개편의 명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음.
- 특히, 이태원 참사처럼 재난 예방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대응 및 복구가 중요하나, 이번 조직개편안은 사고 발생 이후 단계인 신고·접수, 수습의 기능만 강화되어 있고, ‘재난안전예방과’는 기능 강화 없이 부서 명칭만 변경된 것에 불과함.
-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안전자문단 운영으로 안전관리와 재난대응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나, 공식 조직체계에 속하지 않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어느 정도 행정상의 구속력을 발휘할지 미지수임.
- 한편, 기관의 명칭을 부서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하여야 하고 직 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난안전관리실은 재난대응 기능에만 집중하여 기관의 고유 기능인 도로, 교량 등 시설물 유지·관리기능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.

(2) 한강사업본부 조직 및 기능 강화(안 제60조)

- 서울시는 시장의 공약사업인 “한강 르네상스 2.0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‘한강사업본부’를 ‘미래한강본부’로 명칭을 변경하고, ‘수상운영과’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강화함.

- 이로 인해 한강사업본부는 1본부 5부 18과에서 미래한강본부 1본부 5부 19과(+1과)로 확대됨.



- 지난 3월에 발표된 “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”은 ‘함께 누리는 위대한 한강’을 비전으로 4개의 핵심전략별 10대 과제와 55개의 사업을 제시함.

<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 개요 >

| 비전 | 함께 누리는 ‘더 위대한 한강’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4대 핵심전략 |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| 이동이 편리한 강 | 매력이 가득한 한강 | 활력을 더하는 한강 |
| 10대 전략 | 자연성 회복 자연친화적 환경 | 한강연결 수상산책 이동성 확장 | 감성조망명소 문화예술공간 축제·행사 | 성장거점 강화연계 주거지 혁신 |

- 이 중 ‘한강사업본부’는 20개의 사업을 담당하며, 한강의 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각종 행사와 한강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서해벚길 복원과 서울항(여의도) 조성 등 핵심과제를 수행할 예정임.
- 이를 위해 수상사업부에 ‘수상운영과’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함(4과→5과).
 - 대규모 민간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서해벚길 사업 등 신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‘수상기획과’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함.
 - 현행 ‘수상기획과’의 수상 시설물 운영·관리 기능을 신설한 ‘수상운영과’로 이관하여 전담 추진함.

< 한강사업본부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 담당 현황 >

| 10대 전략 분야 | 사업명 | 담당부서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이동성 확장 | 한강술래길 운영 | 총무부 |
| 문화예술공간 | 한강 역사문화홍보 전시관(뚝섬 자벌레) | 총무부 |
| 행사 |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축제 | 총무부 |
| 행사 | 한강사계절축제 「2023한강페스티벌」 | 총무부 |
| 감성조망명소 | 전망카페 활성화 | 운영부 |
| 행사 | 한강 흥프로젝트 | 운영부 |
| 한강연결 | 암사초록길 등 한강공원 보행 접근시설 정비 | 시설부 |
| 수상산책 | 선유도 보행잔교 | 시설부 |
| 감성조망명소 | 자전거도로 감성조망명소 | 시설부 |
| 이동성 확장 | 서해벚길 복원 및 서울항 조성 | 수상사업부 |
| 이동성 확장 | 한강아트피어 | 수상사업부 |
| 이동성 확장 | 서울수상레포츨센터 | 수상사업부 |
| 이동성 확장 | 수상관광콜택시 활성화 | 수상사업부 |
| 자연성 회복 | 한강 생태공원 재정비 | 공원부 |
| 자연성 회복 | 자연형 호안 | 공원부 |
| 자연환경친화 | 한강숲 조성 | 공원부 |
| 자연환경친화 |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| 공원부 |
| 자연환경친화 | 자연형 캠핑장 조성 | 공원부 |
| 자연환경친화 | 여의샛강 생태체험관 리모델링 | 공원부 |
| 감성조망명소 | 지천합류부 놀빛광장 | 공원부 |

- ‘한강사업본부’ 에서 “한강 르네상스 2.0”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소관 사무에 해당되어 당연하나, 5급 부서 신설(수상운영과)과 신규사업 담당인력 보강(수상기획과)만으로 가능한지 미지수임.
- 한편, 2007년 ‘한강사업본부’ (당시 3부 9과, 12개 지구사무소)로 명칭이 변경된 이래 현재(5부 18과 11개 안내센터)까지 시민에게 잘 안착되어 인식되고 있음.
- 그런데, 시장의 공약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“미래” 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추가해 이미 정착된 조직명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시민의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.

(3) 소관 사무의 현행화 등(안 제69조, 안 제132조)

- 법률과 관련 정부지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운영 등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의 일부 소관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함(안 제69조).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제69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<u>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운영</u> 2. (생 략) 3. <u>아동학대 행위자의 가정조사, 상담, 교육</u> 4. ~ 8. (생 략) | 제69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<u>아동복지 상담전화 운영</u>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입소아동의 상담, 건강검진, 심리 검사 및 가정환경조사</u> 4. ~ 8. (현행과 같음) |

-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,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비영리 민간법인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「아동복지법」이 개정됨(2020.10).
- 「아동복지법」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,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조사 등을 수행하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(제22조)
- 이후 “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” (2021.4, 보건복지부·경찰청)이 수립되면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의 업무가 구분되어 개정안에 이를 반영함.

<공동업무수행지침 중 아동학대 대응 협력체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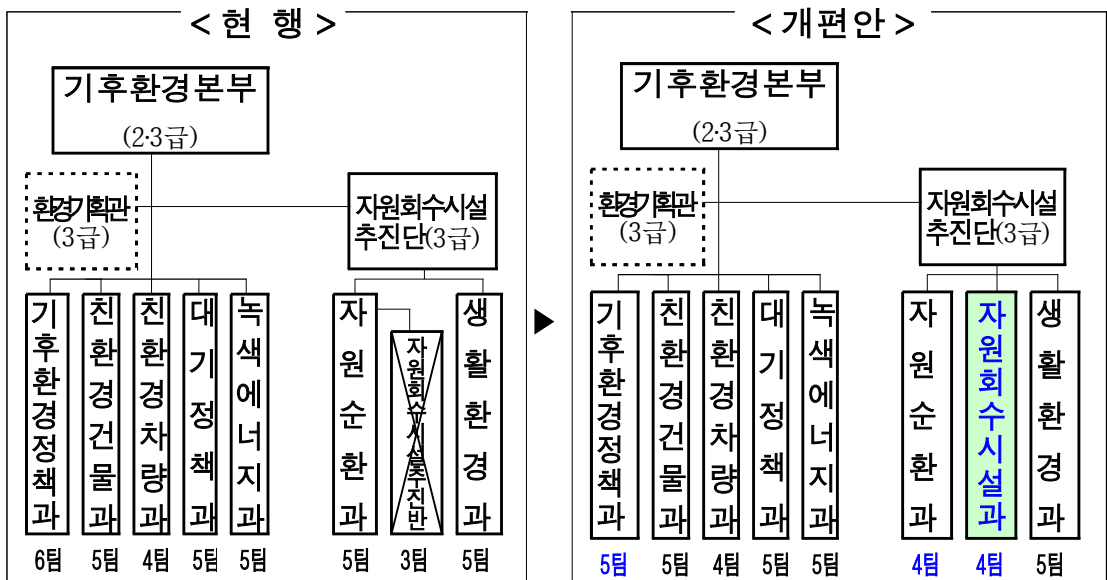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시·도 (아동학대담당부서) | ·사업지역 인력배치·정원 조정, 조례개정 등 지원 ·사업계획 검토·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·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리·감독 ·아동학대 관련 업무 및 운영 지원 |
| 시·군·구 (아동학대전담공무원) | ·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·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조사 ·아동학대 사례판단(신체적·정서적 등) ·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·피해아동,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·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·감독 ·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·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·역량강화 |

라. 그 외 조직개편 사항(시행규칙 사항)

(1) 기후환경본부 개편

-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▶기후환경 본부의 ‘자원회수시설추진반’ (4·5급)을 ‘자원회수시설과’ (4급)로 격상하고, ▶기후환경정책과의 국제협력(국제협력팀)과 교육(환경교육팀) 기능을 통합함(국제협력교육팀 신설).

- 이로 인해 기후환경본부는 1본부 1관 1단 7과 1반에서 1본부 1관 1단 8과으로 확대됨(+1과 △1반).



-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서울시에 자원회수시설(소각장)을 건립해야 하나,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마포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주민소통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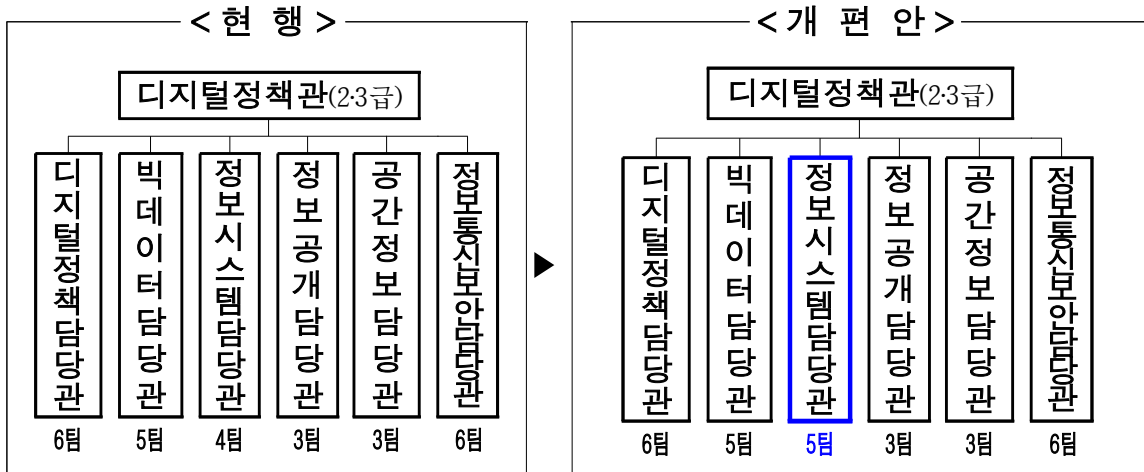
< 마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개요 >

- 후보지 :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 일대(상암동)
- 시설규모 : 1,000톤/일(부지면적 21,000㎡)
- 소요예산 : 8,458억원
(국비 30% 포함 / 자원회수시설 7,177억, 주민편익시설 1,281억)
- 건립방향 : 시설 지하화,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친환경 시설로 조성
- 향후계획 : `22. 9. ~ `23. 6. 입지결정(전략환경영향평가, 최종 입지 발표)
`23. 3. ~ `24. 12. 사전 절차 이행
(지방재정투자심사, 환경영향평가,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, 공사 발주)
`24. 12. ~ `26. 공사 시행(착공 및 준공)

- 특히, 향후 입지결정 고시 등에 대해 주민들의 행정소송 제기가 예상되는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차질 없는 공정관리가 요구되므로 전담조직의 확대와 격상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임.
- 또한, ‘기후환경정책과’의 국제협력과 교육 간의 기능 통합은 정원의 증원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나, 기능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 재설계가 필요함.

(2) 디지털정책관 개편

- 서울시는 챗GPT 등 인공지능(AI) 기반 신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접목·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정책관 ‘정보시스템담당관’ (4급)에 ‘인공지능행정팀(5급)을 신설함[1관 6담당관 27팀 ⇨ 1관 6담당관 28팀(+1팀)].



- 챗GPT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2개월 만에 월간 활성화 이용자수 (MAU)가 1억명을 넘는 등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과급력을 보여 주었고, 우리 정부는 최근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들겠다고 발표함.
- 서울시 역시 대시민 행정서비스, 내부 행정혁신 분야 등에 인공지능(AI)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·적용할 계획이나, 아직까지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인공지능 분야의 총괄기능이 요구됨.
- 다만, 시정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목적이 전시성 행정으로 그치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팀을 구성·운영할 필요가 있음.

(3) 과소팀 정비

- 서울시는 정원 3명 이하의 규모이면서 실제 근무인력 역시 3명 이하인 과소팀들을 업무중요도, 팀장 통솔범위, 조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대상으로 선정함.
- 정비계획에 따라 선정된 팀은 모두 5개이며,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존의 팀으로 통합 또는 업무 이관으로 폐지될 예정임.

< 과소팀 정비 계획 >

| 대상 | 정비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(민방위담당관) 동원계획팀 폐지 민군협력팀 폐지 | - 관·군 협력사업, 병무업무 등 군 관련 업무, 비상대비 업무 일원화 위해 팀 통폐합 ▶ 동원계획팀(폐지) → 비상대비팀으로 통폐합 ▶ 민군협력팀(폐지) → 비상기획팀, 병무관리팀으로 업무 이관 |
| (청년사업반) 청년공간사업팀 폐지 | - 현재 청년 공간의 기능·역할에 대한 재구조화 진행 중('21.10.~)으로, 기존 공간 통·폐합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청년공간 신규조성 사업수요가 많지 않음 ▶ 청년공간운영팀으로 통폐합 |
| (스마트건강과) 건강환경지원팀 폐지 | - 구강보건,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, 영유아 건강검진 등 국비 사업으로 자치구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 비중이 높은 만큼 업무 성격이 유사한 타 팀으로 통폐합 ▶ 구강보건·건강검진 사업 → 가족건강팀 ▶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→ 건강생활팀 |
| (공원조성과) 공원구역관리팀 폐지 | - 유관업무인 도시자연공원 구역 관련 정책 수립·추진과 부지 사용 계약·정비 등 관리업무 일원화 ▶ 공원구역정책팀으로 통합 |

- 독립된 팀으로 존속될 만큼 업무의 양과 중요도가 미흡한 경우에는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조직·인력 정비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마. 종합의견

- 서울시의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안 중 개정안에서는 ‘안전총괄실’ 개편과 ‘재난상황관리과’ 신설, ‘한강사업본부’의 명칭 변경 및 조직 보강을 담고 있음.
 - ‘자원회수시설추진반’의 격상, ‘인공지능행정팀’ 신설, 5개의 과소팀 정비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해당됨.
- 개정안 중 ‘재난안전관리실’로의 기관명칭 변경과 ‘재난상황관리과’ 신설 등은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.
- 하지만, ‘재난상황관리과’ 신설과 ‘재난안전정책과’ 및 ‘재난안전예방과’ 개편 등은 서울시의 기대와 달리 조직개편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.
 - ‘재난상황관리과’ 신설의 주된 효과는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근무인력(6급 이하 2명)에 관리자급(5급 1명)을 추가한 것임.
 - ‘재난안전정책과’와 ‘재난안전예방과’ 개편은 기존의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분야별로(수습·구호·복구/전파 및 접수/예방) 재구조화한 것에 불과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라는 취지를 실현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.

- 또한, ‘미래한강본부’ 로의 명칭 변경은 ‘한강사업본부’ 에 익숙한 일반시민의 혼란과 행정비용의 발생을 야기하고, 서해 뱃길 복원 등 ‘한강르네상스 2.0’ 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조직과 인력 보강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.
- 이처럼 조직개편안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역점 시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목적과 달리 실효성이 부족한 이유는 정원의 증원 없이 부분적인 부서 간 기능과 인력 조정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임.
- 따라서, 증원을 고려치 않는 경직된 조직개편의 기초에서 벗어나 행정수요가 시급하고 필요한 경우라면 조직과 정원을 확대하되, 기능이 소멸하거나 쇠퇴하는 업무는 과감히 폐지·감축해 조직개편의 실행력과 실효성을 높여야 함.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담당자 | 연락처 |
| 김성만 전문위원 | 02-2180-8054 |